

# 여름철 '고질 악취' 잡는다

### 익산시, 전문인력 추가·도내 첫 악취측정차량 도입 24시간 실시간 감시... 단속 강화로 행정처분 27건

익산시가 악취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취약시간대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강도 높은 관리로 여름철 악취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시체계를 확충했다. 우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심야와 새벽시간대 악취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야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며 야간 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악취관리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실시간 악취측정차량을 도입하였다.

특히 시는 올해 악취전문인력 4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산단 및 주요지역에 대한 권역별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 조업 사업장에 대한 악취검사와 사업장 입지 강도별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악취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익산 악취24'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 동산동 소재 환경기초시설 2곳에 실시간 악취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12곳에 24시간 악취 감시체계가 마련되었다.

도심권과 동부권(준포·왕궁면), 남부권(금강·동산동) 등 권역별 악취 발생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0곳을 집중 점검하여 여름철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실시간 악취측정차량을 도입하였다. 15인승 차량을 개조한 악취측정차량은 기상측정기, 분석장비 등 총 6억2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지난달 말부터 산단과 주요 지역을 누비며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차량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종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사업장별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구축되면 악취 발생 시 원인 사업장 추적 및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 분뇨냄새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지난달부터 악취조사용역도 시행 중이다. 1억8,8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분뇨냄새 유발 사업장 및 악취영향권 분석이 이뤄지면 보다 효율적으로 악취배출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악취는 그 원인이 다양하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에덴소재 김영동 대표, 유희숙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제4일반산단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에덴소재, 익산에 35억 추가 투자

### 방화문 단열재 전문업체... 22개 일자리 창출 기대감

익산시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에덴소재 김영동 대표, 유희숙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제4일반산단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에덴소재는 이날 체결한 추가 분양계약에 따라 올해 안에 익산제4일반산단 7,950㎡ 부지에 35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22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와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11년 설립된 ㈜에덴소재는 2016년 왕궁에서 익산 제4일반산단 이전하여 꾸준히 사업을 확장시켜 이번 제4일반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매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2018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화문 단열재 전문업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제4일반에 추가 투자를 통하여 섬유 단열재는 물론 방화문 반제품 조립 생산 및 관련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업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희숙 부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과감하게 익산시에 추가 투자를 결정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우리시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관근기자

## 군산시, 유용미생물 무인공급시스템 도입

### 오늘부터 비대면 서비스 시행... 안정성과 효율성 높여

군산시가 미생물 무인공급기를 도입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군산시가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과 축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용 미생물 (EM) 발효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생물 무인공급기를 도입하고 20일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M은 유용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유산균, 효모, 고초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여러종을 조합, 배양한 것을 말한다.

농업용 EM은 유해 미생물 증식억제 및 토양개량 효과가 있으며 수확증대 및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EM, 클로렐라, 광합성균 등

친환경 유용 미생물 5종을 년 140여톤 자체 배양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농업용미생물 공급방식 개선을 위해 시범 설치한 EM무인 공급기는 코인을 투입하면 1.5리터 용기에 정량 자동으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농업인 편의증진과 미생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대민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공급방식이다.

농업기술센터는 EM무인공급기 2대를 개정동 군산농협자재센터에 위치한 농촌동 농민상담소와 옥서면 농민상담소에 설치했다.

무인공급기에서 정량 공급되는 EM 발효액 1.5리터는 시설하우스의 2톤 규모 농업용수봉에 1회 사용 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정량공급시스템의 도입배경과 미생물 올바른 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SNS와 홍보안내문 발송 등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장비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복합기능성 미생물 제제의 품질과 공급량을 높이고 관내 축산, 과수, 시설채소, 친환경 재배농가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2021년도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문영업 소장은 "환경 친화적인 유용미생물(EM)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농가에서는 농업용 미생물에 대한 올바른 활용법을 숙지하고 미생물을 장기간 보관하지 말고 적정량을 수시로 수령해 활용효과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관근기자

## 익산시 '내일로2.0' 겨냥 특별할인 혜택

### 내일부터 철도여행패스 출시 숙박·렌터카·시티투어까지

익산시는 이달 21일부터 대한민국 대표 철도여행패스 '내일로2.0'이 새롭게 출시됨에 따라 내일로 이용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와 관내 숙박 렌터카 시티투어 운영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내일로 이용객(내일러)을 위한 쿠폰을 발행하여 숙박, 렌터카, 시티투어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숙박의 경우 1인 2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최대 3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렌터카는 1인 2만원 할인쿠폰으로 최대 4일, 순환형 시티투어는 1회 무료탑승권을 제공하여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쿠폰은 내일로 이용객이 익산역 여행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내일로 승차권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령할 수 있다.

쿠폰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웨스턴라이프호텔, 익산유스호스텔, 합리한옥체험관, 금마 정담황토한옥, 금마관 뉴시애틀모텔로 6개 숙박업소와 세진렌터카 익산지점이다.

대당 2만원을 지원받는 렌터카 비용의 경우 24시간 대여시 자부담 4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숙박의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하고, 2인 방문시 4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4성급 호텔 및 SNS명소인 한옥펜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과제 지원은 코로나19로 운영 중지되었던 내일로가 내일로2.0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되어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익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익산=정양원기자

## 지역 소식통

### 방문건강관리 모니터링 폭염대비 건강수칙당부

군산시가 폭염대비 방문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효용을 얻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지역 내 방문건강관리 6,967가구 등록대상자에게 발열 등 코로나 19의심 증상여부와 인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방문건강관리 모니터링 및 폭염대비 어르신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 하고 있다.

보건소는 폭염제단 도우미로 동지역 방문간호사 및 읍·면 지역 방문 담당자를 지정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 폭염대비 건강수칙 교육 및 부채를 제공했다. 인부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려운 대상자는 지속적인 전화 모니터링으로 맞춤형 폭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군산=김관근기자

### 익산시립도서관 책꾸러미 한시적 택배서비스 운영

익산시립도서관은 김병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북스타트(Book-start)'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일찍부터 책읽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도서관 선정도서(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이드북, 예코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립도서관 5개관(모현·마동·영동·부송·황등)에서 출생 직후부터 24개월의 영·유아에게 책꾸러미(그림책)를 배부하고 있으며, 그중 생후 12개월~30개월의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팀을 모집해 북스타트 대상자 교육을 운영했으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37건의 책꾸러미가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이 휴관하면서 상반기 동안 74건에 그쳤다. /익산=정양원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